

# 2019년 유민펠로우 지원 사업 결과 보고서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참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김다혜

## 目 次

- |                       |               |
|-----------------------|---------------|
| I. 들어가며               | IV. 헤이그에서의 생활 |
| II. 헤이그 아카데미 강좌       | 1. 기숙사 생활     |
| III. 헤이그 아카데미 이외의 체험  | 2. 헤이그의 날씨    |
| 1. ICJ 자다브 사건 최종판결 참관 | V. 끝나치며       |
| 2. ICC 정창호 재판관님과의 만남  |               |
| 3. 네덜란드 관저 초대         |               |
| 4. 헤이그 아카데미 투어        |               |

### I. 들어가며

헤이그 아카데미는 국제법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꿔왔을 강좌일 것입니다. 1923년부터 시작되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 130개 이상의 국가에서 국제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지만, 유럽으로 가는 비싼 항공료와 높은 학비, 생활비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선뜻 도전하기 힘든 강좌였습니다.

이번에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 과정을 들어가기 전에 꼭 한번 참가해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무렵,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발견한 홍진기법률연구재단의 유민펠로우 국제강좌 지원사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주저하지 않고 바로 지원을 하게 되었고 재단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II. 헤이그 아카데미 강좌



▲평화궁 전경



▲평화궁 안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 사무소 전경

헤이그 아카데미 수업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해있는 평화궁(Peace Palace)에서 100개 국가 이상의 3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모여 진행됩니다. 이 평화궁은 UN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가 위치한 곳으로 평소에는 한달 전에 미리 투어 예약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일반인에게는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공간에서, 특히 국제사법재판소가 있는 공간에서 국제법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 벅찬 경험이었습니다.

헤이그 아카데미는 국제공법(Public international law)과 국제사법(Private international law) 두 가지 코스 중에 원하는 코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코스 중에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국제통상법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저에게 국제공법에 대한 지식과 관심도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국제공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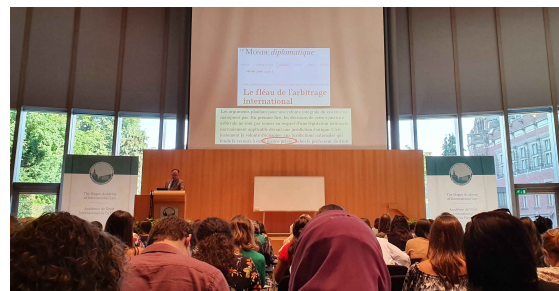
이번 강좌에서의 가장 큰 성과는 흔히 국제공법이라고 하면 막연히 국제인권법, 국제해양법과 같은 것들만 생각하기 마련인데, 평소의 국제법 수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국제법에서의 예술(Arts of International Law)이나 아프리카의 국제재판소(African International Courts)와 같은 수업들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수업들을 통해 제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국제법이라는 분야의 틀이 넓어지게 되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업 안에서 가장 흥미를 가지고 들었던 수업은 생물 다양성과 국제법(International Law of biodiversity) 수업이었습니다. 학부생 시절에도 환경법 수업은 전 과목을 수강했을 만큼 환경법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 생물 다양성 조약의 동향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 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큰 행운이었습니다.

또한, 수업을 들을 때 아무래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더욱 집중해서 들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 내용은 한국의 신학철 작가가 그린 모내기라는 그림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 유엔 자유인권위원회에서 유엔 자유권규약 제19조 제2항의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는 것을 통보한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러한 사건이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저로써는 조금 부끄럽기도 했고, 앞으로 다방면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유민펠로우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함께 온 오른쪽부터 본인, 안호성 장학생(서울대), 장영균 장학생(성균관대)



▲헤이그 아카데미 수업 모습

### III. 헤이그 아카데미 이외의 체험

#### 1. ICJ 자디브 사건 최종판결 참관

헤이그 아카데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을 꼽으라고 하면 국제 사법재판소에서

실제 사건인 자디브 사건(Jadhav Case)의 최종판결을 직접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재판의 수는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 참관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도 매우 큰 의미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당사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온 해당 국가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실시간 중계 영상으로 최종 판결을 지켜보았어야 하는데, 한국 학생들은 한국 대사관의 초청으로 재판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종판결을 보는 것도 흥미로웠지만 헤이그 아카데미 강좌에 참여하고 있던 인도 학생들과 파키스탄 학생들의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으며, 인도와 파키스탄의 미디어의 뜨거운 관심도 볼 수 있어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최종판결을 내린 법정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이 아름다움에도 넋을 놓고 계속 재판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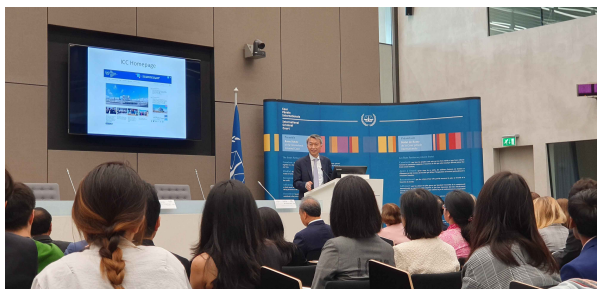


▲ 실제 ICJ 자디브 케이스 최종 판결 모습



▲ 법정에서 기념으로 찰카!

## 2. 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정창호 재판관님과 만남



▲ 정창호 재판관님이 ICC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모습

ICC에서 재판관으로 활약하고 계신 정창호 재판관님께서 흔쾌히 초대를 해주셔서 ICC견학 겸 재판관님에게 인사드리기 위해 ICC를 방문하였습니다. 평화궁과는 다른 현대적인 멋스러움이 있는 건물로, 내부도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되어있어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재판관님께서 열심히 공부해서 꼭 ICC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활약하는 인재가 되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등의 말씀도 마음속에 깊게 새기며 미래의 나도 꼭 한번 이러한 국제기구에서 멋진 선배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초대해주신 당일에는 ICC에서 주최한 모의재판이 열린 날로, 비록 ICC의 재판 과정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모의재판에 대한 최종 결과 참관도 허락해주셔서 국제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아시아권의 많은 학생분들을 만나 뵈 수 있어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 3. 대한민국 주네덜란드 대사 관저 초대

이번 헤이그 아카데미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과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기구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JPO분들을 이윤영 대사님께서 관저로 초대해주셨습니다.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인 네덜란드답게 관저도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이 자리에는 대사님께서 ICC ASP에서 의장으로 활약하고 계신 권오곤 의장님 환영식도 함께 열어주셔서, 국제 기구에서 성공하신 선배님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하였습니다. 대사님과 의장님의 유쾌하신 말씀과 헤이그에서의 생활, 국제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한 당부 말씀, 국제기구에 진출해있는 한국인 학생들의 고충 등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앞으로 제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공부에 임해야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해준 자리였습니다. 무엇보다 오랜만에 먹은 꿀맛같은 한식을 제공해주셔서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 주네덜란드 대사관저에서 모두와 함께



▲ 맛있었던 한식 만찬

### 4. 헤이그 아카데미 투어

헤이그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평화궁 투어와 평화궁 도서관 투어, 그리고 각국의 대사관 투어에 신청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저는 이 안에서도 평화궁 투어와 대한민국 대사관 투어를 신청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평화궁 투어는 저희가 들어갈 수 없었던 평화궁 내부 모습과 역사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볼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가장 재미있었던 방은 일본방이었는데, 이 방안에는 각국의 상징이 수놓아져있는 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투어에 함께 참여한 친구들과 함께 자국의 의자를 찾는 일은 꽤나 재미있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사관 투어로, 타국의 대사관 투어에도 많은 흥미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대사관도 방문해볼 기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사관을 선택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 방문을 신청한 많은 학생들과 함께 대사관에서 준비해주신 한국과 북한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친구들의 열띤 질문으로 많은 학생들이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 IV. 헤이그에서의 생활

##### 1. 기숙사 생활

헤이그 아카데미에서는 스코텔(Skotel)이라고 하는 기숙사를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헤이그 아카데미 학생은 여기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평화궁에서는 도보와 트램으로 약 30분정도가 소요되며, 헤이그아카데미에서 3주간 사용할 수 있는 무제한 교통카드를 지급해줍니다(약 40유로).

스코텔은 각자 예산에 따라서 1인실 혹은 2인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인실 기준 3주간 820유로, 2인실 420유로). 2인실의 경우, 한 개의 하우스에는 총 16명이 한 개의 부엌을 공유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4명씩 같이 사용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있어서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2인실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고, 미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인 친구와 룸 셰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방을 두명이서 사용하지만, 방 중간에 칸막이가 나누어져 있어서 각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우스에는 매우 다양한 인종과 국적을 가진 친구들이 같이 살게 되었는데, 독일, 세르비아, 일본, 부르키나파소, 포르투갈 등등 각자의 전통요리를 만들어서 대접하거나 같이 저녁을 만들어서 나누어 먹는 등 또 다른 의미의 새로운 경험과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녁을 같이 만들어서 먹는 동안 각 국가의 사정과 어떠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목표 등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특히 부르키나파소에서 온 외교관 친구와 많이 친해졌는데, 저에게 매우 생소하고 관심이 없었던 아프리카의 사정과 외교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들과 제가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아프리카에 대한 질문들까지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해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기숙사에서 해변가가 도보 5분 정도로 매우 가까워서 갑작스럽게 더워졌을 때는 같은 하우스 친구들과 곧장 바다로 뛰어가서 함께 놀 수 있었던 것도 기숙사의 매력이었습니다. 다만, 해변가가 너무 가깝다보니 갈매기들이 너무 많아서 문을 잠깐 열어놓은 사이 갈매기들이 부엌으로 들어와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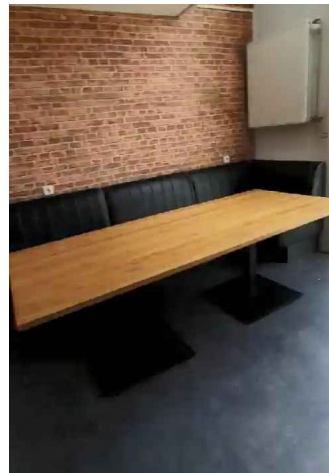
3주간의 짧은 기숙사 생활이었지만 어디서도 경험해보기 힘든 값진 경험이었습니



▲ 기숙사 방



▲ 기숙사의 부엌



▲ 매일 기숙사 친구들과 모이던 식탁

## 2. 헤이그의 날씨

헤이그에서 생활하는데 있어서 날씨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섬머코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날씨가 더울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예상과는 반대로 네덜란드의 여름은 매우 추웠습니다. 반팔과 두꺼운 가디건 정도는 챙겨갔지만 이마저도 부족하여 결국 코트를 사 입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만약 이 이후에 헤이그 아카데미에 참석할 친구들이 있다면 꼭 코트나 패딩을 챙겨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상기온 때문인지 거의 10도에서 16도를 웃돌던 기온이 갑작스럽게 35도나 37도까지 올라갈 때도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추운 날씨 때문에 감기에 걸려서 고생을 하기도 했지만, 반짝 더위가 찾아온 덕분에 친구들과 해변가에서 놀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V. 끝마치며

이번 헤이그 아카데미는 저에게는 큰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막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되는 학생으로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며, 계속해서 직장생활을 해왔던 저로써는 진로에 대한 고민도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헤이그 아카데미를 통해 전 세계에서 같은 공부를 하고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밤새도록 이야기도 하고, 국제기구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배님들도 만나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연했던 박사 과정 생활의 목표 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목표도 다시 새울 수 있는 값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귀중한 기회를 부족한 저에게 주신 홍진기 법률연구재단 관계자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앞으로 헤이그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조금이나 이 보고서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